

1945년 8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4일전 미국 워싱턴에 있던 두 미군 대령은 한반도를 북위 38선을 따라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의 임의적이며 독단적인 결정으로 38선은 곧 남북의 경계가 되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 치열한 전선이 되었습니다. 휴전으로 한반도에 잠정적으로 전투가 끝나고 38선을 따라 비무장지대(DMZ)가 만들어졌습니다.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60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국 캠페인은 비무장지대(DMZ)를 미국 워싱턴에 다시 가져다 놓으려 합니다.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여러 행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 행사를 통해 전쟁상태의 지속과 분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7월 25일 | 오후 2- 4시

**CAPITOL REFLECTING POOL PLAZA (BETWEEN FIRST ST NW AND THIRD ST NW)**

**“평화를 기원하는 100개의 보자기”**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한인들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100개의 보자기 안에 담아 여러분들이 듣고 읽을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앞에 전시할 것입니다. 100개의 보자기들은 100만명이 넘는 이산가족들을 상징합니다.

7월 26일 | 저녁 7-9시 **JUSTICE CENTER, 617 FLORIDA AVENUE NW**

**“잊혀진 전쟁을 기억한다는 것”**

던 보르쉐이 림 (Deann Borshay Liem)의 다큐 영상 "In the Matter of Cha Jung Hee" 는 한반도 전쟁이 낳은 수천명의 입양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단편영화들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7일 한반도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방문과 기자회견**

행사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NODTDOL@NODTDOL.ORG or 646.409.8056**

**WWW.ENDTHEKOREAWAR.ORG**